

도덕적 인성, 도덕적 추론 및 내외통제성의 관계*

강 윤 정¹⁾

가족사랑 서울 신경정신과

박 종 회²⁾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최 지 영³⁾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학년과 성별에 따라 6가지의 도덕적 인성 및 도덕적 추론의 차이를 규명하고, 도덕적 인성, 도덕적 추론, 내외통제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광역시 소재의 한 사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영대 학생 220명이다. 이들의 도덕적 인성은 덕목윤리척도(Virtue Ethics Scale; Shanahan & Hyman, 2003), 도덕적 추론은 한국판 도덕 판단력 검사(KDIT; 문용린, 1994), 내외통제성은 통제부위신념 검사(박영신, 김의철, 최영표, 1996)를 통해 측정했다. 연구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점이 나타났다. 첫째, 도덕적 인성수준과 도덕적 추론 수준은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덕적 인성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4학년에 가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덕적 추론능력은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도덕적 인성과 내외통제성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도덕적 추론과 내외통제성, 도덕적 인성과 도덕적 추론 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신성 요인을 제외한 도덕적 인성을 구성하는 5개 요인들이 내적 통제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직업윤리, 존중, 신뢰, 정직성과 같은 덕목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한 사람이 자신이 처한 도덕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요어 : 도덕적 인성, 도덕적 추론, 내외통제성

* 본 연구는 2009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1) 가족사랑 서울 신경정신과 전문 상담위원

2)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3)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E-mail : choi0122@hnu.kr)

I. 서 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은 윤리의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윤리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훈련된 도덕적 인성과 높은 도덕 추론 수준에 기초한 도덕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은 도덕성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제안하고 있다(Shanahan & Hyman, 2003). 목적론적 접근과 의무론적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목적론적 접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며, 행위자가 기대한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 도덕적 의사 결정이 내려지고 도덕적 행동의 결과를 고려한다. Aristotle(Ross, 1998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올바른 인성의 습관화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의무론적 접근은 도덕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행동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 혹은 보편 원리를 주장한다. Punzo(1996)는 도덕적 행동에 대한 평가적인 판단의 기초가 도덕적 추론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두 가지 철학적 전통은 도덕 심리학 영역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두 가지 토대를 마련했다. 첫째는, 도덕적 인성을 강조하는 덕목 윤리적 접근이며, 둘째는 도덕적 추론 능력을 강조하는 인지 발달론적 접근이다. 덕목 윤리적 접근은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 성향, 혹은 인성 특질로서의 덕목(예컨대, 정직, 용기, 관대함, 자기 통제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덕목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 인지 발달

론적 접근은 행위자의 도덕 추론 능력을 강조하며 그 능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접근은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덕목주의적 관점에 있어서는 도덕적 덕목들을 올바른 행동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식이 없다는 점과 덕목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Cline, 2007). 한편, 인지 발달론적 관점의 경우, 과연 누구의 도덕적 원리를 따를 것인가(Narvaez & Lapsley, 2008) 혹은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지침들을 다 포함할 수 없다(Hunt & Vasquez-Parraga, 1993)는 것이다.

Rest(1983)는 이러한 두 입장을 통합하는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로 사람들이 도덕적 추론이나 도덕적 덕목만으로는 도덕적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없으며 도덕적 동기, 도덕적 성격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도덕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필수구성요소들이라고 제안했다. 예컨대, 친한 친구의 시험 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친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 상황에서 올바른 도덕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초래하게 될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에 대해 고려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부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용기와 같은 도덕적 성격 특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덕목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인성,

인지 발달론적 관점에서 강조하는 도덕적 추론, 성격변인으로서 내외통제성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한편 도덕성의 성차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특히 도덕적 추론능력에서 성차가 있다는 연구(고재혁, 1987; 김성희, 2006; 문용린 외, 2008; 박찬주, 1990; 이정희, 1988; 홍성훈, 2004)와 성차가 없다는 연구(김선영, 1987; 문영삼, 1988; 안영진, 1987; 차행자, 1988)가 혼재되어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연구들도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도덕적 추론능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고재혁, 1987; 김성희, 2006; 박찬주, 1990; 홍성훈, 2004)도 있었으나, 남성이 여성에게 비해 도덕적 추론능력이 높다는 연구(이정희, 1988)도 있었다.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문용린 외, 2008)도 있었다. 문용린과 동료연구자들(2008)은 다양한 연령집단 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만 성차를 발견했다. 즉 대학생들을 포함하여 다른 연령 집단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모두 여학생의 도덕 발달수준이 남학생에게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덕성의 성차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인 연구가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재학기간에 따라 도덕 판단력이 변화하였다는 연구(김지영, 2004)결과를 고려해볼 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대학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다양하고, 이러한 경험이 대학생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도덕성의 차이를 주요 연구문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과 성별에 따라 도덕적 인성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년과 성별에 따라 도덕적 추론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도덕적 인성, 도덕적 추론, 내외통제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덕목주의적 관점에서의 도덕성

덕목주의적 관점에서의 도덕 이론들은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보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성격특성, 즉 친절함이나 관대함과 같은 특성들을 발달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이러한 좋은 특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덕목 윤리적 관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Aristotle의 니코마코스 윤리학(Nichomachean Ethics)에서 이루어졌다. Aristotle에 따르면 사람들의 좋은 성격특성들이 습관화가 되면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보다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Ross, 1998에서 재인용). 또한 그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을 계속 연습하면 자신의 성격특성들이 발달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덕목주의적 관점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공립학교의 시민 및 도덕교육과정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 기

반을 둔 많은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도덕 성격교육 파트너십(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CEP)이라는 조직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가 표방해야 할 11가지 원칙을 제안했다(McClellan, 1992): (1) 좋은 성격특성의 기초로서 윤리적 가치 정립하기, (2) 사고, 정서, 행동을 포함하여 성격특성 정의하기, (3) 학교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정립하기, (4) 관심과 배려의 공동체 만들기, (5)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6) 학습자들을 존중하는 도전적인 교과과정 만들기, (7)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발달시키기, (8) 중요한 가치를 표방하고 도덕적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전문가를 확보하기, (9)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서 도덕적 지도력을 요구하기, (10) 좋은 성격 형성을 위해 가족과 공동체와 함께 하기, (11) 성격특성을 교육시키는 주체로서 학교와 직원 특성, 학생 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20세기 초에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덕목들을 이러한 성격특성 교육 프로그램(기본 학교(Basic Schools), 아동 발달 프로젝트(Child Development Project: CDP), 긍정적 행동(Positive Action), 학교 발달 프로그램(School Development Program)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 단기적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아동 발달 프로젝트는 부모와 교사들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태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의, 이타심, 사회적 책임감과 같은 친사회적 덕목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프로

그램의 단기적인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좀 더 많이 배려하고 격려했으며, 이타적이며 협동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또한 점차 세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과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민주적 가치와 더불어 좀 더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Solomon et al., 1992; Watson et al., 1989).

2. 인지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도덕성

인지 발달론적 접근은 합리성을 근간으로 한 Kant의 의무론적인 관점을 기초로 한다. Kohlberg는 이런 철학적 관점을 지난 40여 년 동안 도덕 발달 심리학과 도덕교육 분야에 영향력 있는 관점으로 전환시켰다(Kohlberg, 1969).

Kohlberg는 인지 발달론적 관점에서 개인의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기술하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개인들은 인습이전, 인습, 인습이후 혹은 원리적 수준의 세 수준을 거치며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인습이전 수준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인습수준의 사람들은 자신의 윤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타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생기게 된다. 또한 규칙, 절차,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지침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습 이후 혹은 원리화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계약 이전에 형성된 가치들과 권리들을 인식

하고 철저하게 의무에 근거해서 행동한다.

Kohlberg 학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수준의 발달 경향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많은 학자들이 연령에 따라 도덕 판단력이 발달한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Baxter & Rarick, 1987; Kohlberg, 1969; Rest, 1986a) 남녀 차이(Gilligan, 1977) 및 문화 간 차이(Snarey, 1985), 도덕 추론과 행동의 단선적 관계(Blasi, 1980)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게다가 Kohlberg식의 도덕 판단 면담(Moral Judgement Interview: MJI) 검사에 대한 반응 해석의 난해함과 번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 방식의 도덕적 추론 검사지(Defining Issues Test: DIT)가 개발되었다(Rest, 1979, 1986b). 도덕 추론 검사지가 개발된 이후로, 도덕 추론에 대한 방대한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DIT연구를 사용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연령과 교육수준이 도덕 추론 능력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Perryer & Jordan, 2002; Rest, 1979, 1986b; Rest & Narvaez, 1994; Thoma & Davison, 1983). 하지만 연령보다는 교육수준이 도덕 추론의 발달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Rest, Deemer, Barnett, Spickelmier, & Volker, 1986).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 변수가 도덕 추론의 단 0.5%만을 설명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남자대 학생의 경우 도덕 추론 점수(44.1)가 여자대 학생의 경우(45.9) 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Rest & Narvaez, 1994). 성별 변인에 대한 논의는 DIT를 사용한 여러 연구들(Forte, 2008; Perryer & Jordan, 2002)에서조차 아직까

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 도덕성에 대한 통합적 관점: Rest의 4구성요소 모델

Kohlberg의 이론과 연구를 토대로 Rest는 Kohlberg이론이 갖는 여러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Rest의 시도는 도덕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객관식 검사(DIT)의 개발, 도덕 추론과 행동의 단선적 관계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위한 4구성요소 모델의 제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Rest는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는 도덕 추론 능력이외의 다른 의사 결정 과정이 개입되어야 가능하다고 제안했다(Rest, 1983). 그는 인지 발달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학습이론, 행동주의적 관점, 정신분석학적 관점, 사회 심리학적 관점을 수용해서 도덕적 행동을 결정하는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모델을 제안했다. 네 가지 구성요소는 도덕적 민감성(moral sensitivity),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 도덕적 동기(moral motivation), 도덕적 성격(moral character)이다. Rest는 이러한 네 가지 구성요소가 적절하게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도덕적 민감성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으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덕적 상황인지를 인식하는 능력이며, 도덕적 추론은 Kohlberg의 도덕성 개념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도덕적 동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와 갈등하는 다른 가치들 중에서 도덕적 가치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도덕적 성격은 선택한

도덕적 의사결정을 실행해 옮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용기, 인내심 등과 같은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 이런 네 가지 구성요소 모델은 대학생과 전문인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Bebeau, 1994).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인성은 Rest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모델 중 도덕적 추론과 도덕적 성격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내적 통제신념은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개인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박영신, 김의철, 최영표, 1996), 이러한 개념은 인지발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적 도덕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반면 외부의 규제나 권위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타율적 도덕성은 외적 통제신념과 개념적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도덕적 추론능력이 높은 자율적 도덕성 수준에 있는 사람일수록 내적 통제신념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Rest의 4구성요소 모델 중 도덕적 성격으로 공감, 자기통제력, 자아강도, 인내력, 용기 등을 들 수 있는데, 내외통제성의 경우에 도덕적 추론능력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도덕적 성격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삶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통제신념은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들어하는 용감한 일을 하거나 충동적인 유혹을 견디고 절제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외통제성이 Rest의 도덕성의 4구성요소 중 도덕적 추론 및 도덕적 성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4. 도덕성과 내외통제성의 관계

개인의 성격 변인으로서 통제 신념은 Rotter (1966)의 내외통제성 개념에 기초한다. Rotter (1966)는 내적 지향적인 사람은 행동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다고 지각하는 반면 외적 지향적인 사람은 보상이 전적으로 자신의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각한다. 도덕 추론과 내외통제성의 관계를 다룬 최근 연구(Cherry & Fraedrich, 2000; Forte, 2004; Latif, 2000; Smith, Hume & Zimmermann, 2007)들은 일관된 결과를 제안하고 있다. 즉, 내적 통제 신념이 높은 사람은 외적 통제 신념을 보이는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 추론 능력을 나타낸다. 또한 내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다 효과적인 도덕적 의사결정을 한다(Trevino & Youngblood, 1990).

한편, 도덕적 인성과 내외통제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덕 추론 능력과 내외통제성의 연구 결과들과 유사하다. 즉, 사회적 책임감을 주장하는 대학생들일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으며(Gutkin & Suls, 1979), 직업윤리와 내적 통제성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Furnham, 1987; Jones, 1997). 또한 전문 경영자들의 책임감, 정직, 능력이 높을수록 내적 통제성이 높게 나타났다(Blackman, 2003). 한편 기존의 한 연구(Coleman & Mahaffey, 2004)에 따르면 경영대 학생들이 비경영대 학생에 비해 속이는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외적 통제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속이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시 소재의 한 4년제 대학의 경영대 학부생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224명이었으나 설문작성에 오류가 있는 응답자 4명을 제외하고 220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58명(26%), 2학년 39명(18%), 3학년 61명(28%), 4학년 62명(28%)이고, 남학생이 143명(65%), 여학생이 77명(35%)이었다. 연구진이 직접 수업 시간에 참석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 및 설문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참여 학생들에게 각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설문지 작성이 끝난 뒤 연구진이 직접 회수하였다.

2. 측정도구

1) 덕목윤리척도(Virtue Ethics Scale: VES)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Shanahan과 Hyman(2003)이 제작한 덕목윤리척도(Virtue Ethics Scale: VES)를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덕목윤리척도는 원래 경영대 학생들의 직업 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래 이 척도는 Solomon(1999)의 45개 직업윤리 덕목들을 기초로 문항을 만든 후 예비검사를 통해 두 문항을 제외하고 총 4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43개 문항 중에서 Shanahan과 Hyman(2003)의 타당화 결과

9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3문항 중에서 9개 문항이 제외된 3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34 문항은 공감(9문항), 직업윤리(10문항), 헌신성(3문항), 존중(4문항), 신뢰성(5문항), 정직성(3문항) 등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연구진들은 1차 번역본이 하위 요인에 적합한 문항인지와 원문의 뜻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한국어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게 적절히 번역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각각의 하위 요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선 공감은 다른 사람의 요구와 관심에 어느 정도 민감한가를 의미한다. 직업윤리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가, 헌신성은 집단의 기대에 맞게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충족하고 있는가, 존중은 자신과 상반된 관점이나 문화적 배경을 얼마나 고려하고 인내하는가, 신뢰성은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정직성은 얼마나 정직한가 혹은 얼마나 도덕적인 용기를 보이는가로 정의된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를 1점부터 6점으로 평정하였다. 직업윤리의식 점수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구했다.

본 검사지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값은 .91, Shanahan과 Hyman(2003)이 밝힌 6개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공감 요인은 .78, 직업윤리 요인은 .81, 존중 요인은 .74, 신뢰성 요인은 .63, 정직성 요인은 .69인 반면 헌신성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다소 낮은 .36이었다. 헌신성 요인의 신뢰

도 계수가 낮은 것은 대략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현신성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중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문항이 있어서 문항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의 반응이 정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현신성 문항 중 일부는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해 학생들이 거부감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2) 한국판 도덕 판단력 검사(KDIT)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도덕 판단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KDIT를 사용했다. KDIT는 Rest의 DIT(Defining Issues Test: DIT)를 문용린(199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총 세 개의 딜레마 상황(남편의 고민, 탈옥수, 의사와 환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딜레마마다 12개의 문항이 제시되고, 이 중에서 피험자가 중요하다고 평정한 4개의 문항 순위에 따라 P(%)점수를 산출하였다. P(%)점수는 전체 피험자의 반응 중 인습 이후의 도덕적 판단(5, 6 단계)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P(%)점수는 0점에서 95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P(%)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추론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Cronbach α 계수는 .81, P(%)의 Cronbach α 계수는 .61이다(문용린 외, 2008).

3) 통제부위신념검사

본 연구에서는 통제부위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박영신, 김의철, 최영표(1996)가 제작한 통제부위신념검사를 사용하였다. 통제부위신념검사는 내적 통제신념과 외적 통제신념의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

은 20개의 문항을 포함하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통제신념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을, 외적 통제신념은 운명이나 행동, 타인의 영향에 의해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이 결정된다는 믿음을 측정한다(박영신, 김의철, 최영표, 1996). 내적 통제신념의 문항의 예로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통제신념의 문항의 예로는 ‘지독하게도 운이 안 따르는 사람이 있다’, ‘불행한 환경을 타고나면 극복하기 어렵다’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를 1점부터 5점으로 평정하였다. 내적 통제신념과 외적 통제신념 점수는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구했다.

본 검사지의 Cronbach α 계수는 하위변인인 내적 통제신념과 외적 통제신념이 각각 .89와 .83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신, 김의철, 최영표(1996)의 연구에서 나타난 .89와 .81과 비슷한 수준이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변량분석방법을 사용했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 도덕적 인식, 도덕적 추론, 내외통제성 변인 간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했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인성 수준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인성 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1과 같다. 3학년 남학생의 도덕 인성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고 ($M=158.476$, $SD=12.063$) 그 다음으로 2학년 남학생이 높은 것($M=157.786$, $SD=17.875$)으로 나타났다. 한편, 2학년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140.909($SD=7.96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과 성별에 따라 전체 도덕적 인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표 2에 따르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F=2.884$, $p<.05$)가 나타났으며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한 차이($F=2.826$, $p<.05$)가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 따른 전체 도덕적 인성 수준에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사후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1학년과 3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F=9.365$, $p<.05$)를 보였다.

공감, 직업윤리, 헌신성, 존중, 신뢰성, 정직성으로 구성된 도덕적 인성 점수에 대한 학년별 평균과 학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인성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남학생	평균	145.828	157.786	158.476	149.364	152.972
	표준편차	16.397	17.875	12.063	24.950	19.295
	사례수	29	28	42	44	143
여학생	평균	147.724	140.909	154.053	153.556	149.675
	표준편차	13.706	7.968	17.772	12.858	14.501
	사례수	29	11	19	18	77
합계	평균	146.776	153.026	157.098	150.581	151.818
	표준편차	15.009	17.405	14.087	22.104	17.800
	사례수	58	39	61	62	220

표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인성 수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학년	2582.181	3	860.727	2.884	.037
성별	660.542	1	660.542	2.213	.138
학년*성별	2530.737	3	843.579	2.826	.040
오차	63279.604	212	298.489		
합계	5140116.000	220			

표 3. 학년에 따른 도덕적 인성 하위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학년	공감		직업윤리		헌신성		존중		신뢰성		정직성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학년	37.36	(4.56)	43.97	(6.15)	9.36	(2.37)	19.05	(2.56)	24.33	(2.87)	12.71	(2.74)	58
2학년	39.10	(5.83)	46.82	(6.18)	9.69	(3.13)	19.56	(2.42)	24.90	(3.42)	12.95	(2.33)	39
3학년	41.67	(4.61)	46.79	(5.60)	9.80	(2.40)	19.74	(2.19)	25.43	(2.55)	13.67	(2.55)	61
4학년	39.81	(6.75)	45.58	(7.73)	9.21	(2.82)	18.97	(3.42)	24.13	(3.31)	12.98	(2.79)	62

표 4. 학년에 따른 도덕적 인성의 차이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Wilks의 람다	단변량F	자유도	유의확률	η^2	단계적 F	자유도	유의확률
학년	공감	.850 (p= .01)	6.227	3	.000	.938	6.227	3	.000
	직업윤리		2.352	3	.073	.934	1.248	3	.293
	헌신성		.634	3	.594	.776	.3414	3	.795
	존중		1.118	3	.343	.948	2.118	3	.099
	신뢰성		2.248	3	.084	.933	1.554	3	.202
	정직성		1.471	3	.223	.874	0.477	3	.699

표 4에 나타나있다. 학년에 따라 도덕적 인성 수준의 6개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했다.

공감, 직업윤리, 헌신성, 존중, 신뢰성, 정직성으로 구성된 도덕적 인성 점수에 대한 학년 효과를 분석한 결과, Wilks의 람다는 .850, 유의확률은 .01로서 학년에 따라 도덕적 인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종속변수별로 분석한 결과, 단변량 F검정에서 학년에 따라 공감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투입된 종속변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그 효과를 교정한 상태에서 집단 간 차이를 검정하는 단계적 F검정(성태제, 2008)에서도 학년에 따라 공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추론 수준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추론 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도덕적 추론 수준(p(%))의 평균 점수는 41.652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45.398, 2학년은 37.520, 3학년은 43.397, 4학년은 39.031이었다. 남학생은 41.494 점, 여학생은 41.947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별에 따라 도덕적 추론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

표 5.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추론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남학생	평균	48.037	38.932	41.359	38.939	41.494
	표준편차	14.958	15.240	13.237	13.803	14.444
	사례수	29	28	42	44	143
여학생	평균	42.758	33.927	47.900	39.256	41.947
	표준편차	15.354	13.884	14.448	16.461	15.569
	사례수	29	11	19	18	77
합계	평균	45.398	37.520	43.397	39.031	41.652
	표준편차	15.258	14.865	13.845	14.486	14.814
	사례수	58	39	61	62	220

표 6.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추론 수준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학년	2441.876	3	813.959	3.851	.010
성별	33.521	1	33.521	0.159	.691
학년*성별	1148.338	3	382.779	1.811	.146
오차	429740.610	212	211.348		
합계	429740.610	220			

이($F=3.851$, $p<=.01$)를 보였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도덕적 추론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유의한 차이($F=7.878$, $p<.05$)를 보였다.

3. 도덕적 인성, 도덕적 추론, 내외통제성의 관계

도덕적 인성 수준, 도덕적 추론 수준, 내외

통제성 수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했다. 표 7에 따르면, 도덕적 인성 수준과 내적 통제성 수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438$, $p<.01$), 6개 하위 요인 중 헌신성을 제외한 5개요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공감과 내적 통제성 수준은 $r=.371$, $p<.01$; 직업윤리와 내적 통제성 수준은 $r=.388$, $p<.01$; 존중과 내적 통제성 수준은 $r=.389$, $p<.01$; 신뢰성과 내적 통제성은 추론 수준은 $r=.353$, $p<.01$; 정직성과 내적 통제성 수준은 $r=.340$, $p<.01$). 한편, 도덕적 인성 수준과 외적 통제성 수준

표 7. 도덕적 인성, 도덕적 추론, 내외통제성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공감	1.000									
2. 직업윤리	.606**	1.000								
3. 헌신성	.230**	.326**	1.000							
4. 존중	.673**	.637**	.205**	1.000						
5. 신뢰성	.507**	.545**	.152*	.603**	1.000					
6. 정직성	.625**	.410**	.131	.413**	.489**	1.000				
7. 도덕적 인성 전체	.860**	.863**	.419**	.798**	.722**	.666**	1.000			
8. 도덕 추론 수준	.128	.070	.001	.134*	.144*	.088	.125	1.000		
9. 내적 통제성 수준	.371**	.388**	.036	.389**	.353**	.340**	.438**	.083	1.000	
10 외적 통제성 수준	-.165*	-.174*	.161*	-.170*	-.174	-.249**	-.186**	-.030	-.519**	1.000

* $p < .05$, ** $p < .01$

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186$, $p < .01$). 도덕적 추론 수준과 내외통제성, 도덕적 인성 수준과 도덕적 추론 수준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적 인성 수준과 내외통제성 수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헌신성을 제외한 도덕적 인성의 5개 항목(공감, 직업윤리, 존중, 신뢰성, 정직성)에서 내적 통제성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도덕적 인성 수준이 높은 반면, 외적 통제성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 비해 도덕적 인성 수준이 높았다. 한편, 도덕적 인성 수준의 6개 항목 가운데, 신뢰성과 존중 항목은 도덕적 추론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신뢰성과 도덕 추론 수준은 $r = .144$, $p < .05$; 존중과 도덕적 추론 수준은 $r = .134$, $p < .05$)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학년과 성별에 따른 도덕적 인성 수준과 도덕적 추론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 도덕적 인성, 도덕적 추론, 내외통제성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대학에서의 도덕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도덕 교육에서 특정 도덕적 항목이나 도덕적 추론 능력 등의 단일한 요인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Rest가 제안한 4구성요소 모델에서처럼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학년에 따라 도덕적 인성 수준과 도덕적 추론 수준은

차이가 있었다.

우선 도덕적 인성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4학년에 가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덕적 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덕목윤리척도가 경영대 학생의 직업윤리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점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대 학생들이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와 관련된 외부적인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도덕적 덕목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도덕적 추론능력이 1학년에 비해 2학년 때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최지영, 김민강, 2007)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최지영과 김민강의 연구(2007)에서는 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의식의 발달경향을 살펴보았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 권위감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데 비해 책임과 자율성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입생 시기를 지나 대학생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면서 때로는 도덕적으로 동기화되기 보다는 자신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개인적 선호에 일차적으로 두는 경우들이 생긴다. 게다가 본 연구의 대상인 경영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윤리나 회계윤리 등의 교과과정이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영대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서 급격하게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둘째, 도덕적 추론 수준의 경우, 미국의 연구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점수(41.65)가 미국 대학생들의 도덕적 추론 점수(42.3)와 비슷하고, 회계학 전공학생들의 도덕 추론 점수(34.5)에 비해서는 높으며 미국 의과대학생의 도덕적 추론 점수(50.2)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st & Narvaez, 1994).

셋째, 도덕적 인성 수준, 도덕적 추론 수준, 내외통제성 수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덕적 인성 총점수와 내외통제성 점수는 관련이 있는 반면 도덕적 추론 점수와 내외통제성 점수, 도덕적 인성 점수와 도덕적 추론 점수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 추론과 내외통제성 간에 상관이 있다는 기존 연구(Smith, Hume & Zimmermann, 2007; Latif, 2000)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인성으로 대변되는 여러 덕목들이 내외통제성이라는 성격변인과 관련이 있는 반면, 도덕적 추론능력은 내외통제성과는 별개의 성격변인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 헌신성 요인을 제외한 도덕적 인성을 구성하는 5개 요인들이 내적 통제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직업윤리, 존중, 신뢰, 정직성과 같은 덕목들을 학습하고 내면화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도덕적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내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의 5가지 덕목들을 제대로 학습하고 내면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덕적 인성과 도덕적 추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독립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덕적 추론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면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되기 힘들 것이다. 반대로 공감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특정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공감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인성과 도덕적 추론이 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Rest의 4구성요소 중 도덕적 품성과 도덕적 추론이 서로 독립적인 구성요소이고,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도덕적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Rest의 4구성요소 모델을 지지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도덕적 인성의 하위 요인들과 도덕 추론 간의 상관분석결과도 상관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 인성 중 신뢰성과 존중은 도덕 추론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관이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도덕적 인성과 도덕적 추론이 서로 구분되는 구성요소라는 점을 여전히 지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 도덕교육이 암기위주의 교육 방법이나 지시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사회

경험이 가능한 실생활 도덕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사회적 경험들은 도덕적 인성뿐만 아니라 도덕 추론 능력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Rest(1983)가 제안한 4구성요소 모델을 기초로 한 도덕 교육의 통합적인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바처럼 도덕적 인성과 내적 통제성은 아주 긴밀한 관계이며 이 두 가지 요인을 Rest의 모델 중 도덕적 성격 요인으로 가정하고 도덕적 덕목, 도덕적 추론, 성격변인을 강조하는 도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문인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도덕 교육 프로그램에 도덕적 덕목, 도덕적 추론, 성격변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전문인 양성을 위한 도덕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방의 한 사립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영대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과 전공 영역의 편중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대학의 학생, 다양한 전공 영역을 고려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같은 경영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도 나라별로 다른 도덕성발달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한 연구(Eynon, Hill, Stevens, & Clarke, 1996)에 따르면 미국의 회계학과 학생이 아일랜드의 회계학과 학생들에 비해 도덕 추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국과

중국의 상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결과(서수덕, 2009), 적절한 회계 및 경영실무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내릴 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재혁 (1987).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그 교육적 함의: 콜버그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 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6).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 관계적 자아 및 애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4). 대학교육과 도덕판단력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영삼 (1988). 고등학교 학생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문제정의 검사에 의한 측정치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4).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진단을 위한 연구: 도덕 판단력 진단검사(DIT)의 표준화 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보고서. 미간행 연구물.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 (2008). 한국인의 도덕 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22(1), 281-299.
- 박영신, 김의철, 최영표 (1996). 한국 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및 한족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통제부위신념 비교. 교육심리연구, 10(2), 171-195.
- 박찬주 (1990). 한국인의 도덕판단과 행동선택에 관한 DIT 적용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수덕 (2009). 윤리와 기업 딜레마 해결시의 문화 및 회계 교육의 역할: 한국인과 중국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28, 59-80.
- 성태제 (2008).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학지사.
- 안영진 (1987).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 수준과 내외 통제성 측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1988). 대학생의 도덕판단에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행자 (1988). 시설아와 정상가정아의 도덕성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 김민강 (2007). 도덕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치과대학생의 전문 직업의식 발달 경향. 교육심리연구, 21(1), 69-88.
- 홍성훈 (2004). 예비 및 현직 교사의 도덕판단력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 DIT와 TTMR을 활용하여. 도덕윤리과교육, 18, 162-175.
- Aristotle. (1998).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by W. D. Ross, <http://classics.mit.edu/Aristotle/nicomachaen.html>
- Baxter, G. D., & Rarick, C. A. (1987). Education for the moral development of managers: Kohlberg's stages of moral development and integrative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 6, 243-248.
- Bebeau, M. J. (1994). Influencing the moral dimensions of dental practice. In J. R. Rest & D. Narvaez (Eds.),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pp. 121-14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lackman, A. J. (2003). *Entrepreneurs: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ir characteristics, values, expectations, management practices and SM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Business, Griffith University.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1), 1-45.
- Cherry, J., & Fraedrich, J. (2000).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locus of control and the structure of moral reasoning: Examining the 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es of sales managers, *Journal of Personal Selling and Sales Management*, 20(3), 173-185.
- Cline, A. Ethics and morality: philosophy of behavior, choice, and character, 2005, <http://atheism.about.com/od/philosophybranches/p/Ethics.htm>, accessed June, 2007.
- Coleman, N., & Mahaffey, T. (2004). Business student ethics: Selected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cheating, *Teaching Business Ethics*, 4(2), 121-136.
- Eynon, G., Hill, N. T., Stevens, K. T., & Clarke, P. (1996).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ethical reasoning abilities: Accounting students from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14(4), 477-492.
- Forte, A. (2004). Business ethics: A study of the moral reasoning of selected business managers and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ethical climate, *Journal of Business Ethics*, 51(2), 167-173.
- Forte, A. (2008). Gender, industries, and the moral reasoning of managers, *Journal of Diversity Management*, 3(1), 39-54.
- Furnham, A. (1987). Predicting protestant work ethics belief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2). 93-106.
- Gilligan, C. (1977). In a difference voices: Women's conceptions of the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4), 481-517.
- Gutkin, D. C., & Suls, J. (1979). The relation between the ethics of personal conscience-social responsibility and principled moral reason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4), 433-441.
- Hunt, S. D., & Vazquez-Parraga, A. Z. (1993). Organizational consequences, marketing ethics, and salesforce superv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February), 78-90.
- Jones, H. B. (1997). The protestant ethic: Weber's model and the empirical literature, *Human Relations*, 50(7), 757-778.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Latif, D. A.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pharmacy students' locus of control,

- Machiavellianism, and moral reasoning,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Education*, 64, 33-37.
- McClellan, B. E. (1992). *Schools and the shaping of character: Moral education in America*, 1607 - present. Bloomington, IN: ERIC Clearinghouse for Social Studies/Social Science Education and the Social Studies Development Center.
- Narvaez, D. & Lapsley, D. K. (2008). Teaching moral character: Two alternatives for teacher educators. *Teacher Educator*, 43(2), 156-172.
- Perryer, C., & Jordan, C. (2002). The influence of gender, age, culture and other factors on ethical beliefs: A comparative study in Australian and Singapore, *Public Administration & Management: An Interactive Journal*, 7(4), 367-382.
- Punzo, V. A. (1996). After Kohlberg: virtue ethics and the recovery of the moral self. *Philosophical Psychology*, 9(1), 7-23.
- Rest, J. R. (1979). *Revised Manual for the Defining Issues Test: An objective test of moral judgment development*, Minneapolis: Minnesota Moral Research Projects.
- Rest, J. R. (1983). Morality. In P. H. Mussen (series ED.) & J. Flavell & E. Markman (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pp.556-629). NY: Wiley.
- Rest, J. R. (1986a).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Rest, J. R. (1986b). *DIT: Manual for the Defining Issues Tes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the Study of Ethical Development.
- Rest, J. R., Deemer, D., Barnett, R., Spickelmier, J., & Volker, J. (1986). Life experiences and developmental pathways. In J. Rest(Ed.),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pp.28-58). New York: Praeger.
- Rest, J. R. & Narvaez, D. (1994). *Moral development in the professions: Psychology and applied ethic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Hillsdale, NJ.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Whole No. 609).
- Shanahan, K. J., & Hyman, M. R. (2003). The development of a virtue ethics scale. *Journal of Business Ethics*, 42, 197-208.
- Smith, A., Hume, E. C., & Zimmermann, R. (2007). The global significance of locus of control in ethical decision making: A multi-country exam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llege Teaching & Learning*, 4(2), 7-12.
- Snarey, J. (1985).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social-mor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the Kohlbergian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7(2), 202-232.
- Solomon, R. C. (1999). *A Better Way To Think About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Y.
- Solomon, D., Schaps, E. Watson, M. & Battistich, V. (1992). Creating caring school and

- classroom communities for all student. In R. Villa, J. Thousand, W. Stainback, & S. Stainback. *From restructuring for caring and effective education: An administrative guide to creating heterogeneous schools*.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Thoma, S. J. & Davison, M. L. (1983). Moral reasoning development and graduate educa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4, 227-238.
- Trevino, L. K., & Youngblood, S. A. (1990). Bad apples in bad barrels: a causal analysis of ethical decision-mak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5(4), 378-385.
- Watson, M., Solomon, D., Battistich, V., Schaps, E., & Solomon, J. (1989). The child development project: Combining traditional and developmental approaches to values education. In L. Nucci (Ed.), *Moral development and character education: A dialogue* (pp.19-36). Berkeley, CA: McCutchan.

1 차원고접수 : 2010. 07. 07.

수정원고접수 : 2010. 08. 13.

최종게재결정 : 2010. 08. 30.

The Relationships between Virtue Ethics, Moral Reasoning and the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Kang, Yunjung

Family love psychiatric hospital

Park, Jonghee

University of Ulsan

Choi, Jiyoung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Virtue Ethics, Moral Reasoning and the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in students at a provincial university. This study was based on both the virtue ethics and moral reasoning approaches. The virtue ethics approach tends to emphasize virtues such as honesty, responsibility, empathy, respect, reliability, etc and these are virtues which have been acquired holistically over the course of a subject's whole life. In contrast, the moral reasoning approach has tended to emphasize reasoning and it can be said to develop through a variety of societal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experiences. However, these two approaches have focused on a single factor, be that virtue or reasoning. Rest (1983) suggested a Four Component Model as a more integrated model. The Four components which make up this model are as follows; moral sensitivity, moral reasoning, moral motivation, and moral character. From this basis,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virtue ethics, moral reasoning by grade and gender,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virtue ethics, moral reasoning, and the locus of control. Two hundred and twenty students attending a provincial university responded to the following scales and measures; the Virtue Ethics Scale (VES), the Korean Defining Issues Test (KDIT), and the Internal-External Scale (IES). Univariate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and the Pearson correlation were used in addressing each research ques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irtue ethics and moral reasoning according to grade, whereas gender had no influence upon the level of virtue ethics and moral reasoning.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virtue ethics and the level of the locus of control. Furthermore, each factor (empathy, protestant work ethic, piety, respect, reliability, and incorruptibility) which made up the virtue ethics under examination, was related to the level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with the exception of one factor, that of piety.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moral reasoning and the level of the locus of control. Our interpret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virtue ethics, moral reasoning, and the locus of control were also discussed, as were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Key words : moral reasoning, virtue ethic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